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브릿지경제

남해관광문화재단,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제11회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사전 홍보
남해로On 여행 구독 서비스 홍보...관계인구 유치 박차

정도정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3-08-10 10:12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오는 11~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남해 대표 관광지를 홍보한다. 남해군 제공.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오는 11~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남해 대표 관광지를 홍보한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관광 유관기관·지자체 등 180여개 기관이 참가해 370여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올해 '미리 만나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콘셉트로 홍보관을 조성했으며, 수도권 시민과 박람회에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맥주축제를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 여행 구독 서비스 '남해로On' 플랫폼을 홍보하고 박람회 방문객 대상 가입 이벤트를 진행해 관계 인구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수도권 일대 관광객을 대상으로 독일마을 맥주축제 사전 홍

보를 위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오는 10월 맥주축제 기간에 남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회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오는 10월 6~8일까지 삼동면 독일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